

# 기획

# 다도해의 보석 섬

## ⑯ 신안군 비급·도초도



하트(♡) 모양을 닮아 일명 ‘하트 해변’으로 불리는 하누님 해수욕장. 하트 해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된 포토존은 연인들의 사진촬영 명소로 유명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섬 같지 않은 섬’...주민 90% 농사·염전이 주업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는 ‘형제섬’이라고 불릴만 하다. 목포여객선터 미널 안내판에는 비금·도초가 한칸에 표기돼 있는 등 모든 면에서 비금·도초가 한 묶음으로 분류된다. 아마도 인접해 있는데다 1996년 두 섬을 이는 서남문대교가 완공되어 이후 생활권이 통합되 까닭이리라.

비금·도초 방문은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50분이면 도착하는 비금도 가산선착장에서 시작된다. 통상 비금도를 둘러본후 대교를 타고 도초도로 넘어가는데 승용차로는 2시간가량 걸리지만 섬의 문화와 생활 등 ‘속살’을 들여다보려면 1박은 필수다. 9개의 큰 섬으로 이뤄진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의 왼쪽 윗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면적은 도초가 신안 14개 읍면중 4번째, 비금이 6번째 크기지만 인구는 비금(3963명)이 4번째, 도초(3155명)가 7번째 규모다.

◇비금도='날아가는 새' 형국이라 하여 비금(飛禽)이라 불린다.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고려 충렬왕 11년(1285년) 강릉유씨인 유시남이 덕산리에 정착하면서부터지만 대다수 마을은 조선 중기에 형성됐다. 730년에 가까운 유인도 역사를 자랑할만큼 물산이 풍부해 농어, 가지미, 낙지, 김 등 해산물이 근해에 넘쳐나지만 정작 주민의 90%는 농업과 염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특산물은 천일염과 '섬초'라는 브랜드의 시금치가 유명하다. 특히 대동염전은 우리나라 최초인 천연색 색상기록 입니다.

주윤덕 신안군 경제투자사업단장은 “일제시대 징용갔던 마을 청년이 해방직후 황해도에서 천일염 생산기법을 배워 와 이곳에서 천일염을 시작한 것이 시초”라며 “1948년 450세대 주민들이 힘을 합쳐 대동염전을 만들었는데 당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대동염전은 현재 근대문화유산등록 362호로 지정돼 있으며 가산선착장에 있는 기념비가 이곳을 국내 최초 천일염 생산지로는 견을 알려주고 있다.

는 기념비가 이곳을 국내 최초 전일엽 생산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섬초는 계르마늄이 함유된 개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당도가 높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지 오래다. 835 누기에서 625b.c를 개벤핵 연간 101억인의 수들은 올리고 있다. 이고난페

동가에서 635ha를 채배해 연간 10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맘때

주민 7천여명...96년 다리 생겨 생활권 통한

천일염의 본고장, 시금치 '섬초' 전국에 명성

면 들판에는 벗짚 태우는 연기로 장관을 이룬다. 조생조 벼를 수확한 후 벗짚을 태워 시금치 파종을 위한 퇴비로 쓰기 때문이다.

볼거리로는 단연 하누님 해수욕장을 꼽을 수 있다. 해변의 모습을 따 일명 ‘하트해변’으로 불리는데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로 뜨면서 연인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됐다는 하누(남편)와 너미의 전설이 연인들의 발길을 더 끄는지도 모르겠다. 하트해변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하누와 너미 전설을 담은 안내판과 멋진 하트 포토존이 있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은 임도(林道)가 나기전에는 접근이 어려워 ‘하늘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누님이라 부르고 있다

이세돌 바둑 기념관도 둘러볼 만 하다. 폐교된 대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08년 12월 문을 열었는데 바둑 대국장과 이세돌 관련자료를 모아놓은 전시실이 비금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바둑천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도초도=인근 섬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해서 도치도(都稚島)라고 했다는 설과 섬 형태가 고슴도치를 닮아 도치도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신라시대 당나라와의 교역시 기항지였는데 당나라 사람들이 지형을 볼때 자기나라 수도와 비슷하고 초목이 무성해 도초(都草)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곳은 비금보다 늦은 입진왜란 전후로 육지에서 아주해 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주민들의 주업은 비금과 같은 농업과 양지이고, 틀사문도, 대수원재민, 토벌한 경제비로 운영된다. 이마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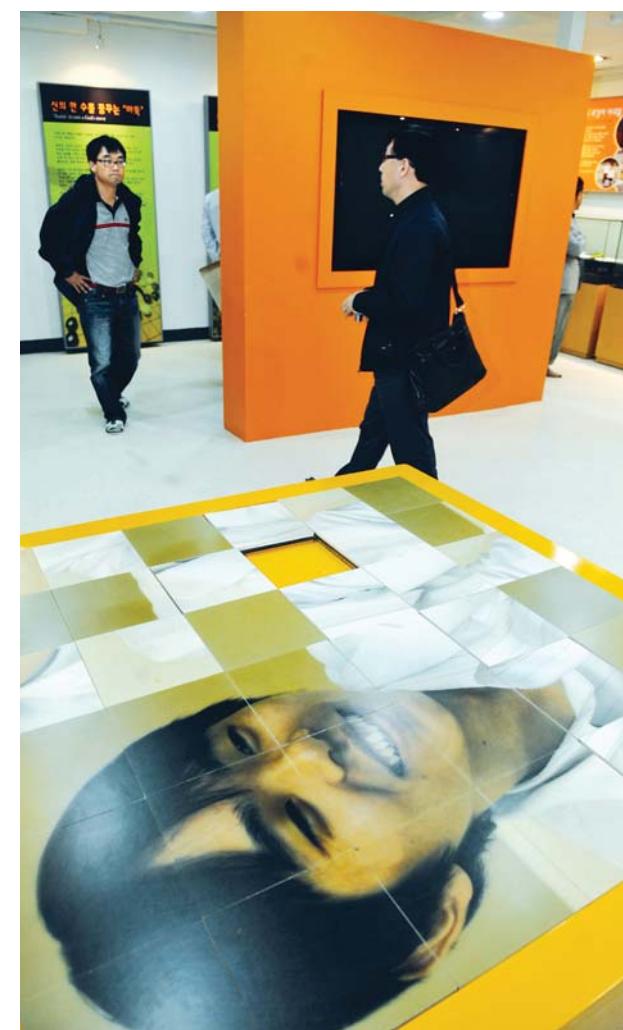
터 잘 잡히는 간재미는 회무침이 별마다

비금에서 천일염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도초 신일염전의 친환경  
염전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최신일 대표가 아버지의 가업을 물  
려받아 시작한 신일염전은 3년 묵어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일반 천일  
염의 10배 가격에 롯데백화점과 대상에 납품하고 있다. 최 대표는 “천  
일염도 와인처럼 오래 묵힐수록 참맛이 우리 나온다”며 “최근 우리나라  
라가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식의 핵심은 소금으로 한식  
재단과 천일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면 광물에서 식품으로 업그레이드 된 천일염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요인 이곳 사랑가는 외간 남자와의 사랑을 염시해 눈길을 끈다.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 그리워 울어요...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만 불어라 석달 열흘만 불어라... 종로 네거리 솔때우는 영감님, 정떨어지는데는 무엇으로 떼우나요. 정떨어지는데는 돈으로 떼우고 솔떨어지는데는 날으로 떼운데요”

여고...승률이전에는 는...도 예고, 링링이전에는 핵...도 예전예요  
고기잡이 간 남편이 못 돌아 오기를 바라고 정이 떨어졌다는데서 숨  
겨둔 외간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비금과 도초가 같은 생활권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차이가 있다  
고 말한다. 최승영 비금면장은 “비금은 돈이 많아 갑부가 많고 도초는  
학자와 고위 공무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안종합건설 박순수  
회장이 비금출신이고 도초도 입구에는 ‘꿈이 있는 인재의 고장’이라  
석이 서 있다.

도초는 섬에서는 보기 드물게 8명당을 지닌 곳이다. 8곳중 대부분을 토착 성씨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파평윤씨들이 자리잡은 수다리 뒷산의 ‘천도낙토지지(天桃落土之地)’는 하늘에서 복숭아가 땅에 떨어진 독특한 형세로 큰 기운이 발휘되는 명당으로 꼽힌다. 도초에 인물이 많은 것도 알만하다고 믿어왔지만 암은 들키니... (주)포수기자 bungy@kwanjae.co.kr



폐교를 리모델링 해 문을 연 이세돌 바둑 기념관.